

신우익의 등장과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탄생*

석 주 희 (한림대학교)
(juhee.suk@gmail.com)



국문요약

이 글은 1970년대 일본 사회에 등장한 신우익의 형성배경과 조직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 우익은 역사와 식민지, 전쟁을 둘러싸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신우익은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기존연구에서는 우익의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에 주목하는 반면 이 글에서는 우익이 일상 가운데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우익의 활동과 조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상적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면에서 신우익은 민족파 학생운동과 일수회를 통해 새로운 민족운동을 조직했다. 활동면에서 신우익은 70년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정책면에서 신우익은 원호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정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결론으로 신우익을 통해 일본의 우익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민단체로 정치과정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제시한다.

주제어 : 전후 민주주의, 일상적 내셔널리즘, 신우익, 민족파 학생운동, 일수회

*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본 논문은 석주희의 박사학위논문(2018)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전후 일본사회에 등장한 우익의 조직과 등장배경, 정치적 영향력을 고찰하는 것이다. 현대 일본의 정치사회에서 식민지와 전쟁을 둘러싼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는 항상 논쟁적이었다. 일본과 해당 국가들은 역사를 둘러싼 화해와 사과, 반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신우익은 특히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한다. 1945년 전쟁 직후 일본 우익은 전쟁 책임과 관련하여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공직에 복귀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1970년대는 신우익이 등장하여 선거에 입후보하고 풀뿌리 정책운동을 조직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었다.

이 글에서는 전후 신우익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구우익과 분리하여 새로운 단체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천황중심의 전전체제로의 복원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정치문화를 공유하는 전통과 우익세력을 결집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정부체제에 반발하는 혁신세력에 대한 대항운동(Counter-movement)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운동을 조직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다. 전후 일본사회는 보수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분출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지식인, 사회운동가를 통해 혁신세력을 형성했다. 혁신세력의 저항운동은 대규모 노동운동과 평화시위로 확산되었으며 60년 안보투쟁은 전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였다. 이 같은 사회적 반발에 대해 우익은 자민당과 연계하여 혁신에 대항했다. 혁신세력은 내부분열과 투쟁으로 세력이 약화된 반면 우익은 세력을 정비하고 잘 조직된 단체를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제도적 차원에서 기존의 정치엘리트와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신우익은 단순히 투쟁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정당을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하거나 정책운동을 실시했다. 원호법제화는 전후 우익이 폭력과 테러를 지양하고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극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신우익은 1970년대 등장한 세력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전후 우익사의 일부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 아베정권과 함께 일본회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전신세력으로 신우익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2018; 야마다 이라시게키(山平重樹) 2018 등). 이들은 전후 우익에서 신우익을 분리하여 일본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제시했다. 자민당과의 네트워크와 개인적 활동에 주목하였으며 자민당의 보수 우경화와 관련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일본 우익 연구자인 야스다 고이치는 우익이 정치적으로 세력화 된 시기로서 1970년대에

주목하였다. 그는 “안보의 계절이 종식되자 우익에게 개헌이라는 새로운 테제가 탄생했다. 우익은 풀뿌리 운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본회의와 같은 대중조직이 발생했다”고 보았다(安田浩一 2018, 7).

호리 유키오(堀幸雄 2017)와 야마다이라 시게키(山平重樹 2018)는 신우익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연대별로 서술하였다. 스즈키 쿠니오(鈴木邦男 1988)는 신우익을 조직한 당사자로서 상세한 사건과 개인적 서술을 통해 애국자로서 신우익을 밝히고 있다. 김태기(2016)는 생장의 집을 통해 민족과 학생운동을 제시한 연구로서 우익의 정치세력화에 대하여 면밀히 고찰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신우익은 전후 우익 가운데에서도 정치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로 보이며 현대 일본정치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를 따르면서도 1970년대를 배경으로 신우익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신우익을 조직과 운동,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정치활동이 가능했던 배경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II. ‘일상적’ 내셔널리즘과 신우익

전후 일본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급작스러운 도입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 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국내에서는 전쟁책임으로 인해 기존의 지배 엘리트들이 추방되었고 전범 재판이 실시했다. 보수와 혁신이 대립했으며 노동·환경·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규모 저항운동이 발생했다. 패전 후 전후 일본에서는 천황의 인간선언으로 기존 국가주의 담론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전전 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익은 천황중심의 정치체제를 주장했으며 때로는 전후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했다.

전후 일본 우익의 활동과 조직을 밝히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일상적 내셔널리즘(Everyday Nationalism)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상적 내셔널리즘이란 거리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위와 데모, 선거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이며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셔널리즘의 전통과 문화, 관습을 말한다(Antonsich 2016; Koch and Paasi 2016). 일본에서 우익은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형태로 활동해 나갔다. 우익은 전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고유한 문화와 습성을 복원하거나 강화했다. 우익은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며 민족주의 성향의 조직과 인물을 결집시켰다. 이들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법제도에 순응하면서도 천황이 통치하는 국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가두시위와 강연회, 연설, 선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했다.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선거에 후보를 배출하거나 기존 정치가와의 연계를 통해 정치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기존의 극단적 폭력주의 성향의 우익과 달리 일상적 공간에서 천황주의를 모색해 나갔다. 스스로 애국주의자로 규정하고 비공식 모임을 통해 천황주의, 헌법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연구하며 기관지를 발행하여 사상을 정립했다.

이 글에서 신우익은 전후 우익 가운데 1970년대 전후로 일본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를 말한다. 사상적 측면에서 신우익은 미시마 유키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가 자결한 이후 기존 우익운동을 비판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¹⁾ 미시마 유키오는 상징천황제를 반대하고 전쟁 책임에 대해서도 부분 인정 혹은 부정하며 천황 중심의 자주국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우익은 반공산주의와 알타·포스담 체제의 붕괴를 내세웠다. 1970년대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문제가 부상하자 신우익이 전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다. 신우익은 전후 미일안보를 중심으로 한 전후체제를 유지하려는 기존의 우익을 비판했다. 신우익이라는 명칭은 스즈키 쿠니오(鈴木邦男)가 설립한 일수회를 중심으로 우익세력이 결집하자 언론에서 이들을 신우익으로 부르며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²⁾ 신우익을 조직한 인물은 주로 1960년대 후반 와세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혁신세력에 대항하는 민족과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들은 1970년대 헌법개정과 자주국방, 영토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신좌익에 맞섰다(김재수 2004, 58).

Ⅲ. 신우익의 정치투쟁: 조직·운동·정책 네트워크

신우익은 일상적 투쟁을 통해 조직을 형성하고 소규모이나 대중운동을 실시했으며 자민당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적 활동을 했다. 이들은 연구모임과 강연회, 정치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신우익이 등장한 1970년대는 일본 사회에서 안보투쟁 등 격렬한 좌파계열의 사회운동이 종식되고 경제성장과 함께 자민당 중심의 보수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1) 미시마 유키오는 작가이자 쇼와사상을 주장하는 급진적 민족주의자로서 천황제를 주장하며 민족주의 단체인 방패회를 조직했다. 1970년 11월 방패회 회원과 함께 할복자살을 하면서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2) 스즈키 쿠니오는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와세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과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등장했다. 민족과 학생운동은 생장의 집을 창시한 다니구치의 제자들이 참여했다. 생장의 집은 스즈키 쿠니오, 요세가와 료이치(籾川良一)등 신우익의 중심인물을 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생장의 집을 중심으로 우익사상이 전파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들은 신우익과 전통우익에 대해 스승과 제자로 간주하였다(堀幸雄 2017, 219).

시기였다. 사회당과 공산당이 약화되고 혁신계 운동이 소멸하고 반정부 시위가 줄어들었다. 반정부에 대한 시위가 감소한 반면 지역사회에 밀착한 생활형 풀뿌리 운동이 혁신의 이름으로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사회운동에 대하여 기존 연구자는 “1970년대 초반 일본 젊은층에게 결사와 투쟁은 현저하게 쇠퇴했다. 1960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에 걸친 시기는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운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長崎宏 2010, 351-352). 이러한 변화 가운데 혁신세력에 대하여 대항해온 우익은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였으며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1970년 미일안보조약 연장은 우익이 세력을 결집하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른바 70년 안보위기를 내세우며 우익은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당시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시위가 발생했고 국회를 둘러싸고 격렬한 투쟁이 이어졌다.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결집하였으며 미일안보조약은 자동승인 되었으나 당시 수상인 기시 노부스케가 해임되었다. 이후에도 학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계 열의 사회운동이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익은 1970년 미일안보조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혁신세력의 저항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70년 안보위기를 전면에 내세운 우익은 혁신세력에 대한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관동회는 “70년 위기설을 통해 우익이 결집하고 공산주의에 전투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高木金之助 1964, 23).

결과적으로 70년 안보위기는 60년 안보투쟁과 같은 대규모 사회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키나와 영토반환 문제, 미군기지 확대에 대한 반발은 있었으나 부분적 시위에 그쳤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혁신계 사회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붕괴되면서 혁신세력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70년 안보위기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도 보았다(堀幸雄 1993, 66). 70년 위기 뿐 아니라 1968년 메이지유신 100년 기념식을 통해 우익세력은 쇼와유신을 앞세워 메이지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의 국가봉축을 추진하고 나치군복을 연상하는 제복을 입고 등장했다(堀幸雄 1993, 61). 이 같은 흐름을 두고 본 장에서는 신우익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조직과 운동, 정치 네트워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신우익이 지향하는 바와 정치활동, 정치세력화에 대해 일상적 내셔널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것이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일상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천황중심의 민족주의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민족파 학생운동과 일수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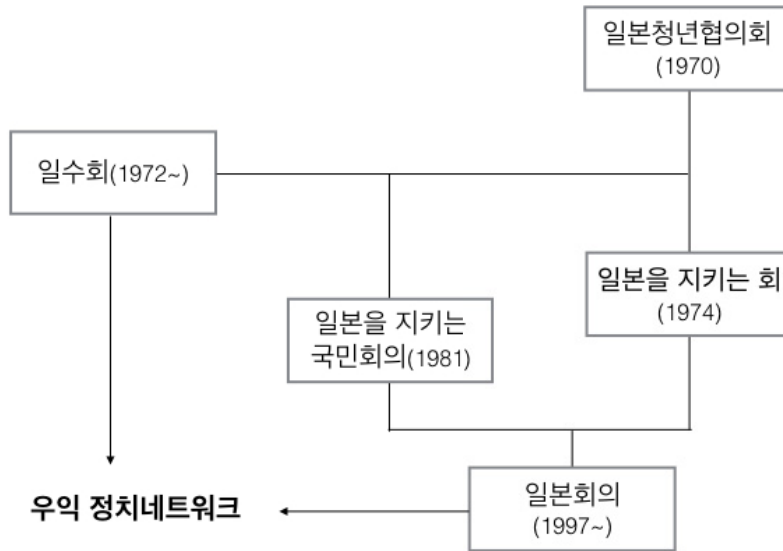
1970년대 우익세력은 200개 단체로 증가했으며 우익단체에 가입한 수는 총 12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우익은 ‘일수회(一水會)’와 ‘일본청년협의회(日本青年協議會, 이하 일청협)’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사상을 구축해 나갔다. 1972년 5월 일수회(一水會)가 설립되면서 신우익의 조직이 정비되었고 민족파 학생운동 출신의 우익이 결집했다. 이들은 극단적 폭력을 지양하고 대신 소규모 연구회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모임의 명칭을 일수회로 하였다. 일수회는 ‘생학련(생장의집(成長の家) 학생연합)’과 ‘방패회(楯の會)’의 멤버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했다. 일수회의 설립취지는 “세계 각 민족을 존중하고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 문화, 정신을 기리며 전후 민주주의를 수정하고 국민공동체를 창출하는데 있다.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자립과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 자긍심 있는 사회운동 추진하고 유신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警備実務研究会 1989, 368). 이처럼 신우익은 전후 체제를 부정하고 천황중심의 통치체제를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73년 국철노동자가 파업하자 일수회는 파업을 비난하는 전단지 배포하고 시위를 했다(步平 외 2015, 370).

신우익 조직인 일본청년협의회(이하 일청협)는 1970년 11월 결성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민족파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기관지인 『조국과 청년』을 발행하고 천황중심의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사상적 기반을 정립했다. 일청협은 “조국의 문화와 전통을 수호하고 현 체제를 타도하여 천황중심의 신체제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일본을 천황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전통적 사상 공동체로 인식하고 민족의 이상을 현대에 재현해야 한다”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일본제국헌법인 메이지헌법을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일교조를 공격하며 전후 교육의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운동했다. 일청협은 주로 학생이나 청년교원을 대상으로 조직되었다(倭義文 2016, 19). 일청협은 1974년 교육학생 세미나를 기초로 설립한 일본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적 교육운동을 했다. 일본교육연구소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교과서를 작성하고 교육이론가와 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교육기본법 타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전국교육학생연락회의, 전국청년교사연락회의를 결성하고 투쟁했다.³⁾ 일청협은 와세다 대학교 민족파 학생조직으로 이후 전국학생협회를 조직하는데 관여했다. 일청협과 전국학생협회 두 조직은 알타 포즈담 반대운동을

3) 1995년에 설립한 자유주의사관연구회에는 일본교육연구소의 교원이나 ‘일청협’ 관계자가 다수 참가했다. 일청협 멤버가 우익 성향의 교직원단체인 ‘전일본교직원연맹(全日本教職員連盟)’을 구축했다. 자유사교과서, 일본회회가 발행한 고교 역사서인 『최신일본사』를 지지하는 이들 대부분은 일청협 관계자나 전일교련의 멤버이다(倭義文 2016, 20).

하다가 1973년 9월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다.⁴⁾ 일청협 멤버는 1990년대 이후 일본회의에 관여하며 우익 조직의 핵심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1〉 1970년대 신우익 조직 및 관계도



출처: 석주희(2018, 11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1970년대는 우익은 기존과 달리 신우익으로 결집해 나갔다. 이들은 1960년대 민족파 학생운동을 경험한 세대로 ‘생장의 집’과도 관련을 맺는다. 일수회와 일본청년협의회는 일본을 지키는 회(1974)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1981), 일본회의(1997)로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일본 우익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2. 1970년 안보위기와 우익운동의 확대

1970년 안보위기를 통해 전후 우익은 사회 전면에 등장하며 조직을 구축하고 정치활동을 본격화했다. 우익은 사회당 중심의 반미투쟁에 대비하여 안보자동연장을 위한 전술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통일행동을 실시했다(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紙広報委員会 1995, 377). 1960년대 일본 반정부 투쟁을 이끈 사회당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했

4) 당시 와세다 대학교 민족파 학생 조직인 반헌법학생연맹의 의장인 미야자키는 2005년 츠크루카이(つくる会)의 사무국장을 담당했다. 츠크루카이가 해체 된 이후에는 일본교육재생기구 상무이사에 취임했다(俵義文 2016, 19).

다. 사회당은 1968년 반안보조약반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국실행위원회 등 전국적 규모로 혁신계 세력을 결집시켰다. 이들은 총평과 함께 사회당과 공산당, 시민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연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공산당은 60년 안보투쟁이후 분열된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사회당과 연대하여 안보투쟁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했다. 미일안보조약을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캠페인과 국회투쟁을 이어갔다(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紙広報委員会 1995, 375). 70년 안보위기는 이처럼 사회당과 공산당의 조직정비, 대규모 시위에 대한 경계와 불안가운데 자리했다.

이에 대하여 신우익은 대항운동을 내세우며 조직을 정비했다. 생장의 집을 기반으로 우익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생장의 집은 1965년 선거에서 입후보를 내세우는 등 테러와 폭력을 지양하고 헌법개정과 자위대 재군비론, 오키나와 핵병기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堀幸雄 1993, 67). 생장의 집 청년의회는 구 우익세력을 탈피하고 학생 중심의 우익단체를 설립하고 민족과 학생조직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생장의 집은 학생을 대상으로 민족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연회와 연구모임을 주도했다.⁵⁾

3. 자민당·우익의 정책 네트워크

1) 원호법제화 운동

신우익이 기존우익과 구분되는 것은 정치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연계와 제도적 투쟁이다. 1960년대 후반 민족과 학생운동을 통해 격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자민당과 재계, 우익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이는 단순한 연계를 넘어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전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우익인사가 추방되었고 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기존의 정치단체와 조직이 해체되었으며 천황은 상징천황제로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었다. 전후 우익이 정치조직이 붕괴되고 사상적 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극단적 폭력의 행위는 우익을 일본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켰다. 그러나 1955년 자민당 중심의 보수정치체제가 구축되고 장기화되면서 우익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간이 점차 확보되었다.

우익이 추진한 원호법제화 운동은 전후 우익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 사례이다. 원호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1950년에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천황을 기리는 의미로 원호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쟁 후 미점령정책에 의해 원호법 규정이 삭제되었다(俵義文

5) 우익은 혁신세력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면에 내세웠다. 예를들어 1969년 150명이 도쿄에서 무장투쟁훈련을 실시했다(歩平王希亮 2015, 382-383).

2016, 14). 1950년 참의원위원회에서 공직회의에서 원호법제화는 자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관료는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호법제화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두었다. 1961년 수상에 오른 이케다는 원호법제화 문제를 공식제도연락조사회의에서 의제로 내세웠으나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고 표류했다. 그러나 1967년에 제정된 건국기념일에 관한 논의는 원호법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문부성은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해 1965년 1월 천황충성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1966년 7월 국회논의를 위하여 건국기념일 심의회를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이를 공포하고 1967년 2월 11일 건국기념일을 실시했다(表義文 2016, 13-14). 이어 1970년 자민당 내에서 원호법제화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자민당 내각부회에 원호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6년 천황 재위 50주년에서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원호에 관한 소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천황 재위 50년 축하 기념식을 통해 원호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고취시켰다. 이어 미키 수상이 원호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8년 말에 오키나와를 제외한 46개 도도부현에서 원호법제화를 결의하였다. 1978년 10월 17일 각의에서 결정하였으며 1979년 6월 원호법안이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되어 성립했다(堀幸雄 1993, 228).⁶⁾ 이처럼 우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화에 이른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우익운동에서 상징적 사건이었다.

2) 일본을 지키는 회와 선거운동

신우익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실시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가 ‘일본을 지키는 회(日本を守る会)’이다. 이들은 쇼와천황 재위 50년을 통해 민족운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일본회의 설립에도 관여하며 영토와 헌법, 천황과 교육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表義文 2016, 15). 일본을 지키는회는 신도와 불교계의 신종교단체를 기반으로 1974년 4월에 결성되었다. 일본을 지키는회는 발족 후 원호법제화운동에도 관여했으며 선거에서 정치가를 배출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자민당 의원을 배출하였으며 대부분 낙선하다가 1977년과 1980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80년대 이후 자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민족과 학생운동 출신이다.

6) 『生政連=ユース』(1978/11)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이 찬성했으며 50% 이상 찬성한 지역은 야마가타, 도쿄, 이시가와 등 14도현이다(堀幸雄 1993, 228).

〈표 1〉 생장의 집 참의원 후보 득표수

회수(연도)	당선유무	후보자 성명	소속	득표수
6 (1962)	낙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301,822
7 (1965)	당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854,473
8 (1968)	낙선	타마키타케오(玉置猛夫)	자민당	627,897
9 (1971)	당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719,017
10 (1974)	낙선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자민당	552,854
10 (1974)	낙선	다나카타다오(田中忠雄)	자민당	550,689
11 (1977)	당선	타마키카즈오(玉置和郎)	자민당	1,119,598
12 (1980)	당선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⁷⁾	자민당	1,037,410

출처: 『生政連ニュース』(1977年9月号)를 바탕으로 필자작성(석주희 2018, 124).

한편, 일본회의는 설립된 이래 풀뿌리 우익운동을 내세우며 전국규모의 우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일본회의는 천황과 전통, 사상, 종교가 결합된 조직으로 일본 최대의 우익단체이다(석주희 2019, 22). 이들은 정치영역에서 정당 정치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는 강연회와 출판, 연구회를 통해 민족주의, 역사수정주의 등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였다(석주희 2019, 31). 아베 내각의 장기화와 더불어 일본회의와 같은 단체를 통해 우익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의 기반에는 1960년대 혁신세력에 대한 대항으로 등장한 민족과 학생운동과 신우익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

IV. 결론

1970년대 일본은 전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모순이 분출되던 시기였다. 일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셔널리즘으로 등장한 신우익은 정책운동과 연구회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7) 무라카미 마사쿠니는 생장의 집 정치운동을 이끌었으며 ‘일본청년협의회’에 참여했다. 또한 일본회의 설립에 관여했으며 ‘일본을 지키는 회’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의 지도자였다. 자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노동대신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갔다(석주희 2018).

우익운동을 실시했다. 1970년대 미시마 유키오 사건을 계기로 기존 우익과 단절한 신우익은 원호법제화 운동을 전개하여 우익을 조직화하고 폭력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신우익의 정치활동과 특징에 대해 조직과 운동, 네트워크로 정리했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1970년 기존 우익과 다른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새로운 우익이 등장했다. 반알타, 포츠담 체제를 주장하며 천황통치의 복귀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주장했다. 둘째,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혁신세력에 대한 대항운동으로 우익운동이 등장했다. 우익운동은 메이지 유신과 같은 전전체제에 대한 기억, 천황에 대한 충성과 메이지유신의 복구를 내세웠다. 셋째, 자민당과의 정치네트워크와 선거를 통해 우익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특히 원호법제화 운동은 우익이 이른바 '풀뿌리 운동'을 주장하며 우익운동에서 정책으로 이어진 성공적 사례이다. 1977년과 1980년은 민족과 학생운동 출신의 우익인사가 중의원에 당선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1980년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각지에서 결성되면서 우익은 우익운동을 강화해나갔다. 이들을 중심으로 헌법개정,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와 교육칙어, 기미가요의 국가화, 기밀보호법, 북방영토반환,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우익운동이 결집하며 최근까지도 신우익과 민족과 학생운동 출신의 우익인사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우익은 아베내각에서 일본회의가 주목을 받으며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배경에는 전후 일본우익이 자리하며 특히 신우익과 민족과 학생운동은 사상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아베 내각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극단적 성향을 지닌 우익인사가 정치네트워크에 등장하며 정당, 선거, 싱크탱크를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 대중운동을 실시했다.



- 김준섭. 2002. 기시 노부스케: 전후 일본의 우익 정치인의 원형. 일본연구논총 15, 51-81.
- 김채수. 2008. 일본우익의 활동과 사상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호섭 외. 2000. 일본우익연구. 서울: 중심.
- 남기정. 2014.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106, 94-134.
- 박철희. 2009. 일본 보수정치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1960년대와 1990년대 비교. 일본연구논총 33, 159-188.
- _____. 2011.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석주희. 2018. 일본 정치사회의 동학과 우익의 복원: 정치자본과 결사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9. 일본 우익에 대한 소고 - 아베내각과 일본회의. 내일을 여는 역사 77, 20-33.
- 석주희·최은봉. 2015. 일본 무라야마 담화의 상징성과 내재화의 간극: 국내 사회 지지 단체-반대 단체의 세력화와 동학. 일본연구논총 42, 31-58.
- 손기섭. 2012. 일본 자민당의 전후 국가전략. 국제관계연구 17(2), 143-168.
- 한상일. 1988. 日本의 國家主義 : 昭和維新과 國家改造運動. 서울: 까치.
- 町村敬志. 1987. 低成長期における都市社会運動の発展-住民運動と新しい社会運動の間-.
- 栗原彬·圧司興吉編. 社会運動と文化形成, 157-184.
- 蒲島郁夫, 竹中佳彦. 2012. イデオロギー. 東京大学出版会.
- 小野直樹. 2002. 戦後日米関係の国際政治経済分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中野晃一. 2013. 戦後日本の国家保守主義—内務・自治官僚の軌跡. 岩波書店.
- 佐伯啓思. 2001. 国家についての考察. 飛鳥新社.
- 山本英弘·渡辺勉. 2001. 社会運動の動態と政治的機会構造. 社会学評論 52(1), 147- 162.
- 大岳秀夫. 1996. 戦後日本のイデオロギー対立. 三一書房.
- 猪野健治. 2005. 日本の右翼. 筑摩書房.
- 伊東光晴. 1976. 保守と革新の日本的構造. 筑摩書房.
- 堀幸雄. 1999. 戦前の国家主義運動史. 三嶺書房.

- 河内孝. 2009. 血の政治 青嵐会という物語. 新潮新書.
- 原彬久. 2003. 岸信介証言録. 毎日新聞社.
- 田中宏. 1994. 戦争責任・戦後責任—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朝日選書.
- 竹前榮治. 1992. 戦後日本の原点(上). 悠思社.
- 市民連合編. 1974. 資料「ベ平連」運動(上). 河出書房新社.
- 色川大吉. 1994. 民衆運動のフォークロア. 昭和史世相篇. 小学館ライブラリ.
- 神田文人. 1997. 国民意識の変化と大衆運動. 岩波講座 日本歴史23現代2, 岩波書店.
- 歩平王希亮. 2015. 日本の右翼—歴史的視座からみた思潮と思想. 明石書店.
- 天道是. 1992. 右翼運動100年の軌跡—その抬頭・挫折・混迷. 立花書房.
- 堀幸雄. 1993.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 堀幸雄. 2006. 右翼事典. 柏書房.
- 大野達三. 1981. 昭和維新と右翼テロ. 新日本出版社.
- 岩井利夫. 1976. 新聞記者の右翼研究. 経済往来社.
- 毎日新聞社編. 1964. 組織暴力の実態. 毎日新聞社.
- 社会運動研究会. 1961. 右翼運動事典. 恒文堂.
- 久野収. 1972. 久野収対話集・戦後の渦の中で〈1〉新しい市民戦線. 人文書院.
- 松下圭一. 1970. 政党政治と直接民主主義 第34回社会党大会を前にして, 1970年12月 月刊労働問題. 久野収.
- 高木金之助. 1965. 組織暴力の実態. 毎日新聞社.
- 千葉眞. 2008. 平和運動と平和主意の現在. 東京: 風行社.
- 藤原修. 2014. 日本の平和運動—思想・構造・機能. 国際政治. 第175号, 84-99.
- 稲田雅洋. 1990. 日本近代社会形成期の民衆運動. 東京: 筑摩書房.
- 猪口孝. 1983. 現代日本政治経済の構図—政府と市場.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 伊東光晴. 1976. 保守と革新の日本的構造. 東京: 筑摩書房.
- 小野直樹. 2002. 戦後日米関係の国際政治経済分析.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中野晃一. 2013. 戦後日本の国家保守主義—内務 自治官僚の軌跡. 東京: 岩波書店.
- _____. 2016. 右傾化する日本政治. 東京: 岩波親書.
- 道場親信. 2005.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東京: 青土社.

● 투고일: 2020.01.15.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10.

| Abstract |

Formation of *Shinuyoku* and ‘Everyday’ Nationalism in Japan

Suk Juhee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analyses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al context about the *shinuyoku* during the 1970's in Japan. A national groups emerged in Postwar Japan, through the various struggles for the nationalism. While previous studies posit that right-wing are driven by certain politicians or *yakuza*. This paper develops the argument that ordinary peoples also a crucial actor to creates nationalism in Postwar Japan. To explain this, I draw a notion of ‘Everyday Nationalism’. Firstly, the *shinuyoku* who are the new nationalism group was created to compromise between young members and former right wing groups, such as *minzokuha* group. Moreover, new right-wing groups can be organized with an emphasis on the opposing movements for the 70's *Anpo* crisis. Thus, I suggest that the *shinuyoku* perhaps appeared as a well-organized civil groups in Post war Japan than any other nationalism groups.

〈Key words〉 Japanese Democracy, Everyday Nationalism, *Shinuyoku*,
Minzokuha Student Movement, *Itsuikai*